

길 문화콘텐츠의 생태학적 해석*

- 경기옛길을 중심으로 -

유영초**

국문초록

길 걷기가 여행과 건강 등의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이는 올레길, 둘레길, 숲길 등 각종 지역 브랜드와 명칭의 500여개의 1200여개의 걷는 길 코스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길 문화콘텐츠들이 대체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왜 걷는가?’, ‘누가 걷는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의미의 기능이 탑재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막연한 지역관광활성화의 경제성 측면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

본고는 우선 ‘길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경기옛길의 정체성을 규명해 보는 가운데, 길의 의미에 정초한 비전과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한 바로는, ‘길’은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위한 걷는 길은 물론, 추상적인 시간이 담긴 여정, 생활양식과 방법, 나아가 철학적인 태도와 규범 등 세상의 총체적 원리를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호프스테드의 문화 이해에 따른 상징과 의례, 영웅과 가치의 측면을 걷는 길에 적용하여, 우선 걷는 길의 문화적 표층인 상징과 명칭을 이해하기 위해 경기옛길의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경기’의 자연 생태적 조건과 역사적 의미로 볼 때 한반도의 중심에서 사방의 근본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되며, ‘옛길’의 종교적 함의가 주는 측면에서는 깨달음의 길, 지혜의 길이라는 의미를 확인했다. 따라서 경기옛길은 ‘한반도에서 사방의 근본이 되는 경기의 길로서 길에 응축된 자연과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의 옛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 본고는 2016년 경기옛길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경기옛길의 비전과 방향”을 새로운 방향에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의 문제의식과 논지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Forest Contents lab)

접수일(2019년 3월 24일), 수정일(2019년 4월 11일), 게재 확정일(2019년 4월 15일)

경기옛길의 비전은 이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길의 주인들이 길을 세워·사방의 근본'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데 있다. 도(道)는 자연에 정초하여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때, 길의 역사와 기능 역시 자연의 원리 속에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론으로서 생태계의 근본원리를 적용할 때, 관계성, 다양성, 순환성, 체계성, 발전성이 길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 경기옛길은 역사와 자연을 기반으로,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이슈들을 사회생태계와의 관계성과 순환성의 증진을 통해 길의 입체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걷기의 가치와 철학, 지식과 방법론의 체계성을 갖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옛길에서의 역사가 포섭된 노거수와 전통생태 등의 자연에 대한 깊은 천착과 이해가 필요하며, 방법적으로 다양한 '길학교', '치유와 명상의 길', '사유의 북방한계선'을 극복하는 '평화의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성을 높이는 길도 포함된다. 걷는 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걷는 길에 관한 문화·상징'과 '스토리'의 인식수준에서 나아가 의례와 가치의 인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걷는 길, 문화콘텐츠, 경기옛길, 상징, 생태학

I. 길을 내기 위해

이 글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역시 ‘걷기예찬’이 가장 쉬운 수순일 것이다. 대체로 여름이면 작렬하는 태양의 열기로 오장육부를 데워가며, 대지를 밟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본다. 스프링크스의 수수께끼처럼 사람은 해가 뜰 때 네 발로 걷고, 중천에는 두 발로 걸으며, 황혼에는 세 발로 걷는다. 이처럼 해가 중천일 때 걷지 않고서야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무겁고 깊은 걷기가 아니더라도 도심의 산책길이나 숲길을 걷는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제 걷기는 삶의 양식이 되었다. 걷는 길은 그저 양식을 얻기 위한 이동수단으로서가 미디어가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생활양식, 즉 그 자체가 독립적인 문화가 된 것이다. 길과 걷기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문화이자 문화콘텐츠가 되었다는 것은, 걷기를 돈 되는 산업으로 부흥시키고자 다양한 ‘길 문화콘텐츠’¹⁾를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이에 발맞춰 걷기에 대한 상찬의 언어들은 귀에 박힐듯하고 걷기철학, 걷기인문학에 관한 책들도 즐비 하게 걸어 나온다.

물론, 걷기만이 아니라 야외로 향하는 다양한 발걸음이 존재한다. 걷기, 뛰기, 자전거타기, 캠핑하기, 비박하기, 산행, 등반 등의 인구가 늘어났다. 지난 몇년간 일상복과 등산복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한국인의 의관정제로 통했던 ‘아웃도어 룩’의 시장이 이를 말해준다.²⁾ 특별히 길과

1) 길 문화콘텐츠는 길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길 자체가 하나의 문화콘텐츠이면서 2차, 3차 문화콘텐츠를 생성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중층적, 입체적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생성중’이라는 임대근의 비유와 “콘텐츠는 인간이 자연과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나오는 온갖 거리”라고 한 이기상의 용어 정의, 그리고 “인간의 손이 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 콘텐츠와 문화콘텐츠의 차이를 발견했고, 문화콘텐츠는 인위성(人爲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유제상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전제 하여 사용하였다.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재론再論』,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제4권, 글로벌컬처산업연구센터, 2014, 15쪽. ; 이기상, 『문화콘텐츠학의 이념과 방향』, 『인문콘텐츠』 제23권, 인문콘텐츠학회, 2011, 20쪽. ;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콘텐츠하우스, 2017, 28쪽. 참조)

관련한 활동에서 보면 북한산 둘레길이 100만 명을 돌파한 지가 10년이 되어 가고, 제주 올레길만 해도 2007년 개통 이래 초기 3,000명에 불과 하던 탐방객수가 2014년 117만 명을 넘어서더니 개장 10년인 2017년에는 7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어왔다.³⁾

이런 인기에 힘입어, 정부와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길을 만들어왔다. 환경부의 생태 탐방로와 녹색길, 둘레길을 필두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와 해파랑길, 국토해양부의 누리길과 녹색경관길, 행정안전부의 명품 녹색길, 해양수산부의 해안누리길, 산림청의 숲길 등 부처별로 다양한 길을 조성해 왔다.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걷기여행과 자전거여행 정보안내 포털 두리누리길(<https://www.durunubi.kr>)에 올라 있는 길만해도 1,693개 코스가 있다.⁵⁾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을 잇는 평화누리길이 부분적으로 개통되고 있고, 이는 남한의 둘레 약4,500km를 하나로 잇는 ‘코리아 둘레길’의 단계적 추진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하드웨어’의 조성 중심의 길에 관한 정책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부처나 지자체의 중복된 길 사업에 의한 예산낭비, 과시행정의 문제점은 물론, 같은 길의 다른 이름붙이기 시비도 일어난다. 또 그냥 맨땅으로 두어야 좋은 길을 두고 데크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2)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 아웃도어 패션시장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2015년 한국의 영화산업, 출판산업 규모가 대략 1조6천억원, 1조4천억원이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국내 아웃 도어 현황 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 2014, 10쪽. 참조)

3) 연합뉴스, 「제주올레 탐방객 500만 명 훌쩍…개통 후 8년간」, 2015.1.11. ; 중앙일보, 「제주걷기 열풍 이끈 ‘제주올레길’ 10주년 · · · 770만명 이용」, 2017.9.17.,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346>(검색일자: 2019.3.20.)

4)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개발 연구원, 『걷기여행길 통합관리 ·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2004, 8쪽

5)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걷는 여행길 정보안내 포털(<http://www.koreatrails.or.kr>)을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두리누리길로 통합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2017년 11월 2일 <코리아둘레길, 더 큰 비전을 담는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57개길 1,774개 코스 약 17,589km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보수교체를 해야 할 공사를 하거나, 조성만 해두고 관리되지 않아 마치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길조성의 방안과 후속관리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놓고 ‘길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고, ‘코리아 둘레길’ 발상이 또 다른 4대강이냐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⁶⁾

그러나 사실 우리의 걷는 길은 너무 짧다. 걷는 길은 상대적으로 길지도 많지도 않을뿐더러, 더욱이 걷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싶다. 일본은 이미 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보도(自然歩道)를 통해 25만km에 달하는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고, 프랑스의 랑도네(randonee)길만해도 우리가 현재 너무 많다고 말하는 걷는 길의 10배에 이른다. 장거리형 코스가 6만5천여km, 단거리형 코스 11만5천만여km의 총연장 18만km에 이른다.⁷⁾ 하다못해 사람의 몸속 혈구의 길도 12만km에 달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걷는 길’을 내고 더 많은 길을 걸어야 한다. ‘3보 이상 승차’의 문화나 차량중심의 도로문화의 개선에 걷는 길이 앞장서야 한다. 그동안 차에 양보한 길보다 더 많은 걷는 길을 모세혈관처럼 트고 열어야 할 것이다. 실핏줄이 튼튼해야 정맥도 살고 동맥도 살 것 아닌가.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길을 조성하는 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길이 인간이 길들인 자연으로써 가장 원초적인 문화이자 문화콘텐츠라고 했을 때 길을 내는 이유, 길에 담긴 의미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유 없거나 의도하지 않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문화나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걷는 길을 왜 조성하는지, 대체로 그 길의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길의 의미는 매우 단선적(單線的)이고

6) 조선닷컴, 「전국에 ‘걷기 길’이 넘쳐난다... 7개 부처·지자체서 경쟁적 조성, 예산낭비 심각」, 2012.5.13., <http://blogs.chosun.com/pichy91/2012/05/13/>(검색일자: 2019. 3. 20.); 경향신문, 「코리아 둘레길, ‘박근혜 정부판 4대강 사업’일까」, 2018.6.25.

7) 김명수, 박정은, 최영국, 정소양, 「江·山·海를 잇는 국토녹색길 조성」, 『국토정책 Brief』 227호, 국토연구원, 2009, 1-8쪽.

평면적(平面的)으로 보인다. 둘레길, 올레길, 물레길, 바래길, 나들길 등등 다양한 이름들의 길들이 있지만, 대체로 기존의 보도나 산책길, 관광길, 산행길에 표지같이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수하여 길을 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성의 의도는 대체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와 같은 물질적 속성과 연계되는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광 콘텐츠로서의 속성을 보다 명쾌하게 반영해야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왜 걷는가? 누가 걷는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수요와 니드를 파악하는 관광개발로서도 기본 전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길의 정체성은 불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여암 신경준은 “길이란 주인이 없고 오로지 그 위에 있는 자가 주인이다”⁸⁾고 했다. 길을 걷는 자의 의지와는 달리 걷는 자의 몫이기도 하다. 순례길에서 관광을 하든, 비단길에서 구도의 성찰하든 왜 걷는지는 걷는 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이가 없는 길은 길이 아니기에, 걷는 길이라면 모름지기 그 길의 생태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종교적 동정(identification)⁹⁾에 따라서 생성될 의미의 결실들이 사뭇 달라질 것임은 자명하다. 길의 본질과 의미에 충실하여 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그 길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명료해지고, 길에 대한 지식과 정보, 체험의 콘텐츠, 걷기의 방법과 의미, 걷기를 통해 생성된 스토리들이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길은 그 의미와 실체에 따라서 길의 흥망성쇠와 변화를 함께할 것이다.

본고는 우선 길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나의 문제의식의 저변에는 우리의 길은 매우 짧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물리적 길이는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천년을 이어온 산띠아고 가는 길이나 구마노 고도와 같은 길에 비하면 그 역사성이 매우 짧다. 물론, 사례로 다루고

8) 김종혁, 「[옛 길을 따라] 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68권, 역사비평사, 2004, 333쪽.

9) 생물: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있는 경기옛길의 역사는 기록으로야 어느 길에 뒤지지 않을 시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차들이 달리는 길로 대체된 지 오래고, 걷는 길로 다시 복원하거나 대체 루트를 만든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의 올레길, 둘레길, 옛길 등이 갖고 있는 길 문화의 깊이와 두께 역시 얇으면서도 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호프스테드에 의하면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은 상징(symbol), 영웅(heroes), 의례(rituals), 가치(value) 등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표층에서 심층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상징은 그 사회나 집단의 브랜드나 로고 같은 것이고, 영웅은 상징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의례는 인사와 복식 등의 그 집단과 사회에 내면화되어 있는 절차와 신념 등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는 이렇게 드러나는 문화의 기반이 되는 가장 심층부에 있는 ‘가치’는 다른 세 요소의 뿌리가 된다. 즉 이는 상징, 의례, 영웅 등의 표층적 내용은 심층적 가치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에서 발현된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가치란 문화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길의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브랜드와 로고, 표식과 같은 1차적인 상징, 길의 문화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웅, 이를테면 산따이 고 가는 길에서의 ‘성 야고보’, 시코쿠 순례 길의 ‘홍법대사’¹¹⁾도 필요하고, 일본 순례길에서 볼 수 있는 복식과 의례들은 일본의 길문화콘텐츠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징과 의례, 영웅으로 표출되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길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다. 이를 기초로 경기옛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해보고자 시도할 것이며 가운데, 그 비전과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10) 조창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87쪽.

11) 시코쿠오헨로길은 교야산 진언종의 홍법(코우보우) 대사가 밀교를 포교하기 위해 다닌 길로 알려져 있다. 박정원, 「일본 시코쿠오헨로길... ‘신 불습합’ 진언불교 1,200년 전통, 길로 이어져」, 『월간 산』 572호, 참조

II. 길의 의미와 본질

1. 길의 개념과 유래

길은 사소한 개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까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장 단순하게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당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말한다. 그 이외에도 ‘걸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분야’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 과정과 시간, 척도의 단위로서의 의미는 물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버릇, 습관, 습씨 등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길은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은 물론 추상적인 시간이 담긴 생활양식과 방법, 나아가 철학적인 태도와 규범, 세상의 총체적 원리를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길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은 물론, 방향이나 습관, 방법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길에 관한 확장어가 대단히 많다. 길이 이렇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미망을 갖는 것은 비단 우리말뿐이 아니다. 영어의 way라는 단어 역시 기본적으로 방법, 방식, 투의 의미는 물론 태도와 양식을 뜻하기도 하고 길, 도로, 가도라는 구체적인 공간은 물론 진로, 도정, 방향의 의미의 시간과 가치의 의미를 포용한다. 방법(method)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길(hodos)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도 길의 본질적 의미구성의 입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¹²⁾

물론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용도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길을 의미하는 말들도 다양하게 있다. 도로(道路)나, 가로(街路)와 같은 한자말이나, 어원상 말을 타고 간다는 의미의 로드(road)라든가, 거리를 의미하는 스

12) 강내희, 『길의 역사』, 문화과학사, 2015, 11~15쪽 참조. 길의 종류를 두 페이지에 걸쳐 조사해 놓았다.

트리트(street), 발이나 다리의 의미를 갖는 패스(path)와 같은 영어의 명칭들도 있다. 이외에도 길은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길에서의 운반 수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존재한다.¹³⁾

그러나 여기에서 길의 의미와 본질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길의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분류나 분석만으로는 길이 갖는 총체적 의미망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 군사, 교역, 문화 등의 기능 수준의 이해로는 ‘길’, 즉 ‘도로(道路)’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각각(各)의 발(足)로 소유하는 기능인 걷기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끔씩 들어보는 “도를 아십니까?”의 도는 세상의 원리로서의 도(道), 이치로서의 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태권도, 다도를 말할 때의 도의 경우도 그것이 지니는 원리와 이치 그리고 방법론으로서의 길을 포함한다. 길이 이처럼 입체적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 사유와 실체를 통합하는 본질적 기능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길은 우선 생각이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와 같은 대중가요처럼 이런 방향과 목적과 방법에 따른 ‘생각’이며, 그 뜻에 따른 동적 결과물, 실체로서의 ‘길’이 이루어지기 되기 때문이다. 한자의 도(道)를 파자하여 보면 머리 수(首)와 쉬엄쉬엄 가다,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착(屐)자가 된다. 따라서 길의 의미에는 ‘머리가 걷는다.’는 사유, 즉 ‘생각’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⁴⁾ 때문에 길의 종류나 기능에는 반드시 이러한 ‘생각’이 담겨있고 있어야 할 것이다.

13) 길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 정치행정로: 문서수발로, 압행로처럼 정치 및 행정 목적으로 이용된 길 - 군사외교로: 파발로, 봉수로처럼 군사외교적 목적으로 이용된 길 - 물자유통로: 보부상길처럼 지역 간 물자의 유통에 이용된 길 - 사적여행로: 통혼로, 산수요람로처럼 사적 목적이나 여행에 이용된 길 - 문화전파로: 쇠신이나 문화 속성의 확산, 외래문화의 유입 및 전파에 이용된 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역사문화로 개발실태 및 활성화방안』, 2014, 참조)

14)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잡·타·길의 인문사회학』, 세창출판사, 2017, 162쪽.

2. 길의 기능과 의미구조

사람이 날 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알았을 리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즉, 먹을거리를 구하고 생존하는 길, 생각의 길은 본질적으로 땅에서 구현되는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 즉 자연의 원리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방법론으로서의 길은 자연의 물리적인 길에서 비유되고 추상된다. 하늘의 운행 길(天道)이나 물길과 같은 구체적인 길의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사람의 도리와 삶의 방법론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로부터 배우며, 하늘은 도(道)를 따르고, 도(道)는 자연에서 배운다고 말한다.¹⁵⁾ 도(道)는 본질적으로 하늘이나 땅 그리고 생명체들의 움직임 속에 구현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길의 본질은 자연의 원리, 생태계의 원리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에 모두 길이 있다. 하늘의 궤도위에 별들의 길이 있고, 땅에는 산맥과 수맥과 지각과 용암의 길이 있다. 풀과 나무는 솟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새는 날고, 파충류는 기며 사람은 걷는다. 이 자연의 머나먼 진화의 여정 속에 길은 이미 나있었고, 그 ‘옛길’을 따라온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속의 산길, 들길, 물길, 바람길, 생물들의 길에서 인간의 삶의 길과 가야할 길을 만들어왔다. 우리의 눈길, 발길은 당연히 물길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약초 길은 짐승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¹⁶⁾ 바람길을 가늠하여 생활공간을 잡는 것은 당연한 생활의 길이다.

우리의 영남길 중 가장 험난하기로 유명한 토끼비리는 태조 왕건이 토

15) 道德經 25장: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6) 볼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사례로 “인간이 원시림에서 이동하려 할 때는 금세 하마나 코끼리의 이동로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2011, 127쪽.)

끼길을 따라가서 찾아낸 길이라고 한다.¹⁷⁾ 독일의 슈트트가르트가 바람 길을 트면서 세계의 환경도시로 거듭났다고 유명세를 탔지만, 우리의 풍수(風水)관념은 삶의 기본이었다. 미국의 동서횡단도로의 모태가 되었다는, 서부개척 도로들은 인디언들의 길이었으며, 그 인디언들의 길들은 야생들소들의 길이었고, 그 야생들소의 길들은 물길과 식물들의 길이었을 것이다.¹⁸⁾ 또 이러한 땅의 길들은 태양계와 우주가 빚어내는 빛과 기후와 에너지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면 그것은 곧 어떤 원리 또는 섭리 즉, 길(道)을 따르는 일이고 나아가 그 도는 스스로(自) 그러한(然) 존재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논할 때는 이러한 입체적이고 총체적 의미로서의 길보다는 선적이고 평면적이며 단편적인 의미구성으로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길의 역사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자연(nature)을 문화(culture)화 하면서 생성된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기능이 모두 담겨 있다. 이것은 자연이 빚어낸 인간의 숙명적 길의 역사이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욕구발달단계나 인류의 발전단계와 일치한다. 즉, 아래 그림 물리적 생물학적 단계에서의 길은 원시사회에 대응하며, 경제적 사회적 단계의 길은 농업 혁명기에 대응한다.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단계의 길들은 산업혁명기의 길에 대응시킬 수 있으며, 문화적 교육적 단계의 길은 지식정보사회의 사이버 루트와 같은 정보고속도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철학적 구도적 단계의 길들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새로운 길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류역사의 발전단계를 개체로서의 인간의 욕구발달단계와 대치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즉, 유아기의 생물적 욕구단계, 소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소속의 욕구단계, 청년기의 정치적 지배적 욕구단계, 장년기의 자아실현의 문화적 욕구단계, 노년기의 성찰적 종교적 욕

17) 여성조선, 『등산전문기자들이 직접 다녀온 명품 둘레길 33선』, 2014, 70쪽.

18) 김중혁, 「[옛 길을 따라] 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2004, 334쪽.

구단계가 그것이다. 노년기는 결실기이며, 죽음과 새로운 탄생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길은 한 개체든, 인류 전체든 직립 보행기의 원시인류로부터의 기억들이 퇴적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림에서는 단방향의 선형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길의 의미와 실제적 구조는 생애주기 동안 통합적이며 입체적으로 겪게 된다. 아래쪽의 구체적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길과 위쪽의 추상적 정신적 시간으로서의 길의 기능과 의미는 통합적이고 입체적이다.



〈그림 1〉 길의 기능과 의미구조 (출처: 저자 정리)

[그림 1]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모든 길의 목적은 삶에 있다. 산다는 것은 먹는 것이고, 번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1차적이면서 기본적인 기능일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는 농담도 있지만,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류도 생존과 번식을 위해 야생의 정글에서 채집과 사냥과 유목의 길을 만들어 왔을 것이다. 탄자니아 오카방고의 숲에서 탈출한 이래 지구별을 배회해 왔던 인간의 길들은 본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생물학적 루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길은 또한 사회적 기능 즉, 소통의 기능을 한다. 길을 통해 물자를 나누고 통신을 한다. 물길을 따라, 야생동물들의 길을 따라 포식하고 번식한다. 물론, 이 역시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길의 기능만이 아니다. 동물들은 물론 심지어 식물들도 신호를 주고받는 소통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이유를 건강에 둔다. 그런데 걷는 의미가 건강을 위한 체력 증진 활동이 추가 되는 길이라면 역시 인간만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 동물들이 헬스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체력증진활동이 그 자체의 문화적 목적을 갖는 지 번식능력을 에너지의 충전인 지에 따라서 걷는 길의 의미가 생물학적 수준이거나 문화적 활동으로 달라질 것이다.

한편 길은 침략과 지배의 미디어이기도 하다.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도로를 하나의 미디어로 놓고 커뮤니케이션(전달)로서의 수송이라는 개념을 논의하였다. 특히 <은유metaphor>라는 말이 그리스어 <meta>와 <pherein>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형태의 상품과 정보 수송을 은유와 교환으로 다룬다고 말하고 있다.¹⁹⁾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제국이 길로 구축된 미디어 제국임을 말해준다. 길은 군사, 정치적으로는 침략과 정복, 지배의 길이다. 우리에게는 봉수로와 같은 미디어로서의 길이 남아 있다.

끝으로 길은 구도의 길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는 속담은 물론, 예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와 같은 선언이나, 붓다의 ‘옛 길’이 주는 함의는 길이 주는 고차원의 의미의 내포이다. 분노는 길이 외부 공간을 열어갈 때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며, 그것이 ‘길이 공간을 열어준다’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차원’ 혹은 ‘공간’으로의 이동, 깨달음과 자유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성찰과 구도의 길은 내적으로 나아가는 용맹정진하는 길이 있고, 외적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 야고보의 길도 있을 것이다.

19)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143쪽.

1) '개발도상국'에서의 걷는 길

도로는 늘 공사 중이다. 어쩌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개발도상국'일 것이다. 우리는 왜 길을 닦는 것일까? 물론, 길이 좁아서, 차량이 정체되어서, 물류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경제적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차선은 8차선으로 16차선이 늘어나도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거나 행복이 증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고속도로, 고속철이 생겨서 빨라진 만큼, 주변부의 자원이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²⁰⁾로 인해 지역의 공동화나 피폐화의 문제가 생긴다.

또 인간의 과학기술은 더 이상 자연에게 길을 묻지 않으려 한다. 사람의 길은 강물과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막고 산맥과 수맥을 끊으며 철새들의 하늘 길을 교란한다. 북태평양을 떠돌던 연어 떼가 수천, 수만km 헤엄쳐 동해안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연어들의 바다길이 끊기거나, 문명의 이기들이 쏘아대는 전자파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수만 km를 비행하는 철새들의 길을 잃게 만든다.²¹⁾ 이렇게 환경파괴와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많은 다른 지구생명체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아 왔다고 비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닦아온 문명의 길인 뇌 공학, 생체공학, 유전공학,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제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길을 물어야 하는 정도로 변곡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타당해 보인다.²²⁾

20) “빨대현상(Straw Effect)이란 좁은 빨대로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고속교통 수단의 연결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을 말하며,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으로,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된 후 연계된 중소도시들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도로와 오사가 양대 도시로 인구가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제3의 도시인 고베마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빨대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온라인행정학사전 참조, <http://www.kapa21.or.kr>(검색일자: 2019. 3. 20.)

21) 동아사이언스, 「전자파가 새를 ‘길치’로 만든다」, 2014.5.16. 참조, 유럽올새는 몸속에 나침반 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 지구의 자기장을 인식해 움직인다. 하지만 전자파는 이 감각기관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새는 방향을 잃고 만든다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길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매개하는 미디어로서 여러 층위의 입체적 의미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길의 생물학적 기능 즉, 먹고 사는 통로로서의 길, 교역과 물자의 통로로서의 신진대사의 기능은 이미 물류회사에 넘긴지 오래다. 고갯길을 넘어 자반 고등어를 이고 지고 와서 걸보리와 쌀로 바뀌가던 물물교역의 길은 차로가 대신하고 있다. 또 길의 사회적 소통의 기능조차 정보고속도로상의 메신저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길의 기능과 의미를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가능성에서 찾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길을 걷는 것은 제각각의 발이며, 결국 ‘걷는 길’의 의미와 본질은 그 발밑에 귀속되어 있을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내 걸음을 가늠하여 걷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타인이나 타자를 상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로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걸어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거리의 단위가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진 세상에서 살다보면 자기 자신, 인간의 발걸음으로 측량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동차의 속도로 측량하면서 살게 된다.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땅을 걷는 걸음의 단위와 마을과 마을의 단위가 기본적인 거리의 단위였다.²²⁾ <걷기의 철학>에서 크리스토프 라무르는 “이제 과학으로 잃어버린 세계, 인간의 규모에 의해 걸맞게 되돌아 온 세계, 인간의 발걸음에 맞춰진 세계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행성을 다시 측량하는 것, 즉 땅위를 걷는 것”이라고 제안

22)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드는 2005년,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2029년이 되면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2045년엔 인공지능이 전체 인류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 즉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문적 비판은 논외로 하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다양한 기술문명 진화의 현실은 그대로 긍정된다.

23) 피트(feet)나 마일(mile)의 단위, 보(步)와 리(里)의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크리스토프 라무르에 따르면, 프랑스의 영토가 쾨문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은 사람이 하루 걸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한다. 크리스토프 라무르, 고아침 역, 『걷기의 철학』, 개마고원, 2017.

한다.²⁴⁾ 그런 점에서 걷는 길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과 기능은 자연과의 원초적 “공조행위”인 사유를 통해 내 치수와 규모에 맞게 “내 안으로 세상을 들여 놓는 것”, 즉,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알파고 시대에 길의 의미는 인류의 길을 묻는데 있을지도 모른다. 길이 새로운 학교인 것이다. 앞서 길의 기능과 의미 중에서, 건강과 교육과 문화적 의미의 측면에서도 이미 인공지능이 그 길을 알고 있고,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길의 본질과 의미, 그 기능에서 보자면 지금 ‘길에서 길을 묻는 일’이다. 걷는 길의 본질과 기능은 사유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찾는 지혜의 도로에 있지 않을까?

III. 걷는 길의 명칭과 상징

문화가 상징과 영웅, 의례와 가치로 표상된다고 할 때, 걷는 길의 이름은 로고와 함께 걷는 길의 가장 표층의 상징이 된다. 때문에 걷는 길은 저마다의 특색을 갖고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남해 바래길, 강화 나들길, 금강 소나무숲길 등 길마다 이름을 짓고 각 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동정을 해두었다. 심지어 경상북도 청도에는 개그맨 전유성의 재치를 담은 이름의 ‘몰래길’도 녹색길로 조성하였다. 이처럼 길마다 각자의 차별성과 의미를 담은 이름붙이기(naming)는 길의 정체성에 대한 1차적 프레임을 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을 불러주어 꽃이 되었다’는 시가 있듯이, 이름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그만큼 이름 붙이기 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을 놓고도 지자체나 부처 등에 따라서 다른 라벨을 붙이는 일도 생기게 된다.²⁵⁾ 이름이 그 본질과 정체성을 드러내주지 못했을 때

24) 위의 책, 14-15쪽.

25) 아시아경제, 「길 하나에 이름 두 개. 전국 도보여행길 중복 명칭 ‘수두룩」, 2013.7.11.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도보여행길의 경우 해파랑길과 갈매길의 사용 중인 것을 비롯해,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이상으로 큰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자는 “이름(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事)이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⁶⁾고 했다. 이장희는 이름이 갖는 “객관 대상을 지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이름의 ‘수행적(performative)’ 측면²⁷⁾이라고 말하고, 이는 객관사태를 일정한 규범적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언어가 수행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옛길’라는 이름도 명실상부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정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기옛길은 과연 어떤 정체성과 의미를 담아 어필할 것인가? ‘경기옛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전과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옛길을 구성하는 낱말의 개념과 의미들을 놓고 경기옛길의 정체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경기’는 경기옛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많은 걷는 길들이 있지만, 경기옛길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경기’라는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옛길을 관장하는 부서가 경기학연구센터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경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경기옛길을 통한 경기학의 학문적 가치를 조명하는 일과도 연계될 것이다. 최근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이름을 붙인 정책 사업들이 많아졌다. 성남의 경우, ‘성남 환경교육’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성남시 환경교육의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고, 부천시의 경우 ‘부천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만화와 관련된 문화정책의 특화를 시도한 사례가 그

울산은 해파랑길과 솔마루길 강원 고성은 해파랑길과 산소길, 충남 부여는 사비길과 백마강길, 전북 군산은 구불길, 생태문화탐방로 등의 같은 길에 중복된 이름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경기 양평 ‘두물머리길’은 물소리길, 물레길 등으로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가 각기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

26) 이장희, 「정명론(正名論)의 명실(名實)관계에 대한 고찰」, 『철학논총』 32권, 새한철학회, 2003, 77쪽.

27) 위의 글, 76쪽 참조.

것이다. 각 지역이라는 용어를 수식하는 것은 그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의 거점성과 지역성, 다른 지역과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정체성 제고’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은 마을, 고을, 나라, 세계 등의 여러 차원에서 위계적 중층성을 가지고 있고 인식의 범위에 따라서는 국가 혹은 대륙의 경우도 지역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지역학은 동양학과 서양학, 한국학과 중국학, 경기학과 제주학, 나아가 부천학, 성남학과 같은 학문적, 문화적 위계성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학은 그 지역의 자연생태적, 지리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룩해 나간 문화적 개별성, 차별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기옛길’ 경기의 자연생태적, 지리적 정체성에 기초한 다양한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분단으로 지리적 경계가 왜곡되어 있지만, 원래 북쪽으로 추가령 구조곡을 경계로, 남쪽으로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한반도 3대 지괴의 하나인 경기육괴를 기반 축으로 하고 있다. 또,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유로가 형성된 임진강, 차령산맥 북쪽 사면에 형성된 안성천, 그리고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과 오대산에서 발원하는 남한 강이 만나는 한강을 끼고 있다. 서쪽으로는 250개의 섬을 끼고 있는 바다와 해안이 있다.²⁸⁾ 경기는 이처럼 우리문화의 지리철학적, 생태적 핵심키워드인 산수(山水)를 두루 품고 있다. 경기는 한반도의 중심에서 산과 강, 평야와 바다를 골고루 끼고 있는 자연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길은 물길, 산길, 바다길, 들길이 두루 형성되는 곳이다. 백두대간의 중추에서 발원하는 한강을 품고 있고 바다를 조망한다.

이와 같은 자연생태적, 지리적 정체성은 동서남북 이정표로서의 기능, 방향키로서의 기능, 중심의 근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되게 한다. 때문에 경기는 ‘사방의 근본’ 내지 ‘근본의 땅’이라는 표현처럼, 경기와 서울과 함께 나라의 중심으로서 지방통치를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²⁹⁾ 경기의 역사적 어원에서도 경기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경기(京

28) 경기도, 『경기지오그라피』, 2006, 14-15쪽.

畿)’란 ‘서울(京)’과 ‘서울의 주변지역(畿)’을 일컫는 말이다. 즉 서울을 내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경기는 원래 중국의 고대 봉건사회로부터 유래한 말로, 왕이 거주하는 도읍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돕기 위해 설정한 직할지를 의미한다.³⁰⁾ 때문에 이러한 직할지적 성격은 서울과 독립된 위성도시나 외곽도시로서가 아니라 경기의 정체성이 한나라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 이처럼 경기가 다만,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큰 경제력과 동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연생태적 조건과 역사적 의미에서도 경상, 충청, 전라, 제주, 강원도 등과 등가적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 불과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옛길의 의미를 살펴보자. 옛길의 단순한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먼저, ‘지나 간 때’를 뜻하는 ‘옛’과 ‘길’이 조합된 “예전에 다니던 길”로 정의되어 있다. 즉, 현재보다는 과거의 의미가 강조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즉 고유명사로서가 아니라 보통 어디에나 있는 말이다. 다만, 최근 다시 여행과 트레킹 등의 관점에서 보면 옛길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 옛길은 지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오래된 길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일본의 역사가도(歴史街道)는 옛길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개념인 ‘역사’와 공간적 개념의 ‘가도’가 결합한 용어가 있다. 홈페이지에서 역사가도는 ‘일본의 역사라는 시간 축으로 연결된’ 여행길임을 드러내고 있다.³¹⁾ 즉, ‘옛길’은 길의 다양한 형식이나 내용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되고 기능하며 존재하는 길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옛길을 역사적 의미에서 규정한 바로는 아마도, 김종혁의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

29) 심승구,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서울학연구 58권, 서울학연구소, 2015, 36쪽.

30) 위의 논문.

31) 일본 역사가도추진협의회(歴史街道推進協議會)누리집(www.rekishikaido.gr.jp),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역사문화로 개발실태 및 활성화방안』, 2014.

장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길은 유구한 시간성을 담지하는, 박물관 안에 박제되어 있지 않은,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 유물이며 동시에 사료이다.”³²⁾

그러나 ‘길’의 입체적 의미구성으로 볼 때, ‘옛길’ 또한 이러한 시간적 퇴적이나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 있을 리 없다. 즉, 옛길 역시 철학적 구도적 메타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옛길’의 본질적인 의미는 먼저 걸어난 사람들의 구도의 길이다. 이때는 고유명사로서 쓰이는 개념이다. ‘옛길’은 불교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옛길’은 붓다가 사람들에게 전한 ‘깨달으신 분들의 길’을 뜻한다.³³⁾ 즉, “옛길”은 구도의 길, 깨달음의 길, 지혜의 길인 셈이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옛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길이다. 불교에서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길’의 의미는 각별하다. 또 ‘옛길’은 선한길이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검증된 길을 의미한다. 그리고 걸길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³⁴⁾

이처럼 옛길의 의미는 과거의 오래된 길이나, 역사적인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경기옛길이라는 이름붙이기가 이런 철학적 관점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옛길’의 용어는 분명 종교적, 구도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깨달음과 구도의 길, 선하고 바른 길의 가치와

32) 김중혁 「옛 길을 따라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333권, 2004.

33) “제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옛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아름다운 길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길을 따라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옛성이 있었다. 성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연못에는 연꽃이 드리워진 아주 훌륭한 도시였다. 그는 그 숲을 빠져나와 그 나라의 황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을 시켜 다시 그 성을 복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성이 다시 세워지자 그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고 그 도시는 다시 눈부시게 번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옛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나도 깨달음의 옛길을 발견했다.”, 선묵해자,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아침단청, 2013, 212-213쪽.

3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기와 옛길의 의미구성을 종합하면, 경기옛길의 정체성은 “한반도에서 사방의 근본이 되는 경기의 길로서 길에 응축된 자연과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의 옛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의 해석만으로는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가치와 의례, 영웅이 상징화되지 않는다. 상징과 브랜드는 그 안쪽의 내용과 심층적 가치의 표상이기 때문에, 걷기의 실제적 내용과 그 스토리의 서사를 담은 영웅, 그리고 걷는 길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의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산따이고 가는 길’의 시공간적 내공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와 로고 등의 이미지를 실체화하는, 걷는 길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V. 걷는 길의 비전과 방향

1. 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태학적 방법론

경기옛길이 “사방의 근본이 되는 길로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의 옛길”이라고 한다면, 이 정체성에 기초한 비전과 미션,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방법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길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과의 부단한 교감으로 형성한 인간의 발자취이며, 이는 거대한 자연사에 포섭되어 있다. 때문에 인간의 역사, 과거의 재생산을 통해 미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연생태의 이해와 직지(直指)³⁵⁾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의 길의 본질과 의미에서 살펴

35) 직지直指는 ‘천 개의 강을 비추는 한 개의 달’을 향한 가리킴이다. 즉,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며 대응을 말한다. 말과 문자와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된, 혹은 지식으로 탑재된 천 개의 달이 아니라, 직접 접촉하고 대응하는 한 개의 달을 향한 체득된 지식,

보았듯이, 길은 원리이자 방법이며, 방향이자 목적이라는 입체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경기옛길의 비전과 방향을 세우는 일도 역시 ‘도법자연(道法自然)’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즉 ‘길은 자연에 있다’고 할 때 자연의 원리, 생태학적 원리는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

자연생태계의 생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정체성(identity)과 다양성(diversity), 관계성(network)과 순환성(cycle), 역동성(dynamic)과 발전성(development), 통합성(integrity)과 체계성(systemic, nested)을 들 수 있다.³⁶⁾ 다음 표는 프리초프 카프라³⁷⁾가 제시한 6가지 원리와 형상화된 이미지를 길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나 원칙에 비춰 해석해 본 것이다.







정체성이란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즉, 남과 다른 지점이며 차별화된 특성이다. 경기옛길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가치와 물리적 구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옛길은 길의 주인들이 길을 세워가는 입도(立道)³⁸⁾의

지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36) 생태학은 생물이 햇빛, 물, 공기, 흙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고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 이치와 그 시스템(Being system)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이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이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사회와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이 생태학을 통해 밝혀낸 자연의 원리, 혹은 법칙을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해 놓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3가지를 또는 4가지의 명제를 들어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37)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영국의 임피어리얼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원자 물리학 연구소로 이름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재직했으며, 『생명의 그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등의 저작이 있다.
- 38) ‘설 립’으로 혼동하는 ‘立’은 새로 ‘생겨났다’,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이 형성되거나 없던 것이 ‘들어섰다’, ‘이루어졌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없던 법을 만들고 생성하는 것이 立法이고, 어떤 새로운 차원의 지위와 자리를 차지 하여 확고하게 세우는 것도 立身이다. 立春, 立夏, 立秋, 立冬과 같은 개념도 선적인 시간개념이나 면적인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길은 본질적으로 들고 나는 입출(入出)의 선 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길은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입도(立道)의 개념을 써본다.

콘셉트로 단지, 사람들이 직선적인 공간을 들고 나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재해석되고 차별화되어야한다. 경기옛길은 그 길에서 사유와 실체가 통합되는 걷기의 본질이 구현되는 길이어야 하는 것이다.

〈표 1〉 프리초프 카프라의 생태학의 기본원리와 길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원칙

생태학적 원리	원리의 형상화	원리의 의미와 길 문화콘텐츠에서의 해석과 방법
Networks		관계성 :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길은 소통과 연결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것과 연결되어야한다.
Cycles		순환성 : 자연은 돌고 돈다. 길은 작은 단위나 큰 단위에서 서로 순환하고 이어져야 한다. 길의 문화 역시, 하나의 길이 다른 길로 순환되어야한다.
Flows		유동성 : 에너지가 흐르듯이, 길은 정보와 문화가 흘러야 한다. 단절이 없는 길
Dynamic Balance		역동성 : 길이 단조로운 걷는 길 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동성을 포함해야한다. 길은 타자와의 접촉과 자신과 상대하는 역동적인 일이다.
Development		발전성 : 길이 1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사유의 길이 되어야한다.
Nested Systems		체계성 : 걷는 길이 맥락을 가져야한다. 단계적, 발전적인 구성을 갖고, 입체적으로 구축되어야한다. 상징, 영웅, 의례, 가치의 문화구성의 체계가 필요하다.

*출처 : <http://www.ecoliteracy.org/philosophical-grounding/core-ecological-concepts>의 표를 재구성함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길, 물길, 바다길, 철길로, 산길, 숲길, 고속도로, 최첨단 정보고속도로 등 수많은 길이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노인 빈곤률에서 보여 주듯이 행복의 길은 그 입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무릎의 상처를 딛

고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 몇백만년을 걸어 온 인류의 나아갈 길을 묻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옛길은 새로운 인류와 문명의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는 담론의 공간으로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새로운 길을 묻는 경기옛길의 길학교인 것이다.

자연의 원리에서 차별성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다양성(diversity)과 연결된다. 작은 차이 미세한 차이들의 발견은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이며 다양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옛길은 꽃잎 한 장의 털끝차이에도 주목할 만큼 ‘개성’을 존중하는 길이어야 한다. 앞서, 길의 이름 붙이기의 중복을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의 존재는 그 존재와 관계하는 다양성만큼 많은 이름을 갖게 된다. 한강만 해도 한강을 끼고 사는 고을의 수만큼 강의 이름도 많았다. 영월의 동강, 충주의 달래강, 이천의 여강, 송파의 송파강, 왕십리의 무수막강, 마포의 마포강, 노량진의 노들강, 서강은 모두 한강의 다른 이름들이다. 이처럼 경기옛길도 이러한 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양한 이름의 길들을 품에 안아야 한다.

이어서 생태적 원리의 중요한 요소는 관계성(network)이다. 이 네트워크는 길의 핵심적 기능이기도 하다. 길은 보통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따라 큰길로 나오고, 이 큰 길에서 자유롭게 걷는 길로 이어져야한다. 지금은 자동차에 의해 걷기의 흐름이 끊기고 걸음을 자동차에 양보해야하는 상황이 많다. 걷는 길은 단절되지 않고 모세혈관처럼 이어져야한다. 물리적 관계성뿐만 아니라, 걷기가 ‘종교, 철학, 자연경관, 도시정책, 해부학, 알레고리, 그리고 심장박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³⁹⁾ 있듯이 길 역시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 에 연결되어야 한다. 걷기가 ‘물리적으로 같지만, 철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듯이’, 길의 정체는 다양한 분야로 연결될 수 있다. ‘걷기가 성애와 관련될 수도 있고 지성과 관련될 수도 있으며 혁명과도 관련될 수 있고 예술과도 관련될 수 있듯이’ 길 역시 모든 영역

39) 레베카 소닛, 김정아 옮김, 『걷기의 역사』, 민음사, 2003, 9쪽.

과 관계하며 소통하고 연결 지어야 한다. 걷기와 마찬가지로 길은 “모든 영역(해부학, 인류학, 건축, 조경, 지리, 정치사와 문화사, 문학, 섹슈얼리티, 종교연구)을 ‘통과’하며, 갈 길이 멀기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⁴⁰⁾ 길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옛길은 역사탐방로일 수 있으며, 세월호의 길일 수 있으며, 성소수자(LGBT)의 길일 수 있으며, 종교인들의 순례의 길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옛길은 자연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돌보기를 들이대야 한다. 자연의 다양성, 생태의 다양성과의 접촉에서 사유의 다양성이 나오고, 지식과 문화의 다양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좀 더 예시해보자. 나무는 길의 상징이자 중요한 침묵의 동반자이다. 경기옛길에서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있던 고목에게 길을 물어야한다. 이를 위해 ‘오리마다 오리나무, 십리마다 시무나무’ 길의 동반자들을 다시 모셔야 한다. 길의 이정표가 되는 마을의 정자나무, 마을 어귀나 고개 마루의 당산나무, 신목(神木) 등의 ‘노거수 모시기’가 경기옛길을 걷는 자들이 할 일이다. 옛길에서의 노거수(정자나무, 당산나무), 또는 가로수길의 디자인은 다만 풍경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길의 좌표설정의 의례로서도 기능한다. 산길의 돌탑쌓기는 무사산행과 행복을 비는 기복행위이다. 가로수길, 숲길, 당산나무 등의 풍치와 아름다움은 ‘길’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텔링, 스토리텔링의 문화콘텐츠이다.

경기옛길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문화자원들의 조사발굴을 통한 ‘나무 모시기’, 노거수와 가로수길의 디자인을 통한 ‘길 문화콘텐츠 개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슬쩍슬쩍 건드리고 보태서 집단적 창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길 위의 ‘예술 너지’⁴¹⁾, 이런 일들이 새로운 길의 문화일 것이다. 경기옛길의 예술가나 단체들은 스토리텔링과 이미지텔링이 가능한 풀꽃과 바위, 가로수, 당산나무 등을 풍경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신령스럽게 꾸

40) 위의 책.

41) 너지(nudge)는 원래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말한다. 계단에 다이어트 효과 그림이나 수치를 넣어 엘리베이터 보다 걷기를 유도하는 것도 그런 사례이다.

며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예술 넋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길의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종교적 이슈들을 품을 수 있는 길의 문화적 네트워크의 토양이 된다.

자연생태계는 체계적이며 입체적이고 통합적이며 발전적이다. 이 원리들은 곧 길의 원리이다. 길은 입체적 방향과 지향으로 구성해야한다. 길은 원래 물리적 사방의 공간이 아니라 시방의 공간이다. 즉, 시간과 공간의 입체적 공간이다. ‘시방’은 과거를 재생산해내고, 미래를 창출하는 ‘지금 여기’의 시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옛길은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되고, 미래의 발전지향성을 갖지 못해도 안된다. 따라서 영남길, 삼남길, 의주길이라는 브랜드의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다. 삼남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며, 영남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길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지를 고려해야한다. 왜, 의주로, 평강로를 비단길로 연결하는 대륙으로 ‘사유의 비단길’을 꿈꾸지 않는 것인가? 왜, 영남길을 대마도, 일본의 역사가도와 연결하고, 해남길을 바닷길과 연결하여 ‘장보고의 길’을 꿈꾸지 않은가?

경기옛길은 ‘사유의 북방한계선’을 극복하는 발전성의 원리를 담보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지체현상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하여 인공지능시대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길 역시 과거지향적인, 혹은 방어적인 안보관광의 길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통일관광, 평화관광, 대륙관광의 발전적 길로 걸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걷기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정신과 의사는 ‘인간의 뇌 회로는 앞을 향해 돌아가며 걷는 것은 전향적이고, 지난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평화롭고 전향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걸으면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⁴²⁾

또한 이것은 명분이 아니라 경기옛길의 본질적 특성의 실체에 기인한다. 경기의 정체성은 한반도의 정체성인 것이다. 현실의 쪼개진 남한 쪽

42) 박정원, 『내가 걷는 이유』, 조선뉴스프레스, 2015, 258쪽.

의 경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는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서 한반도의 산(山)과 수(水)의 자연생태적 사유의 근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 경기의 길에서 한반도를 사유하지 않는 것은, ‘근본의 자리’를 경기의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옛길은 마을의 출근길, 학교길, 마실길, 산책길을 포섭하되, 다른 모든 발자국을 담아내는 코끼리 발자국처럼 비교적 먼거리의 사유와 유람의 일탈 공간을 포함 하여야 한다. 즉 걷기를 통해서 일상을 뒤집는 축제의 공간인 것이다. 집을 나서서 보고 즐기고 노는 설렘이 있는 공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경기옛길은 치유와 명상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걷는 것은 사유의 리듬’이라는 명제는 익히 알려져 있으며, 길이 ‘학교’라는 의미도 앞서 길을 걸어난 과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아울러 걷기가 곧 치유와 명상이라는 점도, 많은 사례들이 입증한다. 프랑스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인 쇠이유나,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의 걷기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다.⁴³⁾

끝으로 경기옛길은 ‘성인지적 관점’의 길이어야 한다. 대체로 걷는 길의 주인들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도, 차도의 주인들은 남성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늘 길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 특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접시와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는 말이 남아 있다. ‘힘없이 걷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논리로서 ‘걷는 방법’으로도 범죄의 원인을 뒤집어씌우는 사회이다.

똑같이 거리를 배회해도 남성은 ‘거리의 유랑자’로 철학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여성은 ‘길거리의 여자’로 성적대상 관점에서의 표적이 된다. 이것은 남성중심의 세계에서 흔하게 검증되는 일이다. 사실 여성을 억압하

43) 위의 책, 251-253쪽 참조. 프랑스의 소년원에 수감중인 15-18세 청소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3개월간 하루 25km 이상 총 2,0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교정프로그램으로, 통상 수감자는 재범률이 85%에 이르지만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재범률 15%로 떨어졌다고 한다. 여성 첫 에비레스트 등정을 이룬 다베이 준코와 함께 하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 청소년들은 자연속의 걷기를 통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다고 한다.

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걷기보다는 여성의 ‘워킹’에 관심을 더 갖는다. ‘걷기의 역사’를 쓴 레베카는 ‘세상은 여성이 어디를 걷는가는 관심이 없고, 여성이 어떻게 걷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요약했다. 여성은 느낌의 가치, 심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잘 담지 한다. 걷기의 현장, 생명교육의 현장에서의 여성비율이 더 높다. 경기옛길은 걷는 길의 가치와 방법, 길의 조성과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길의 여성성이 잘 반영되는, 성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경기옛길은 길의 가치와 철학, 길의 조성과 관리, 운영, 프로그램 등의 모든 측면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길이 되어야 더욱 높고 밝은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경기옛길을 예시하여 걷는 길이 가져야 할 가치와 원칙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 논해보았다. 걷는 길이어 일반적인 문화이자 문화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길의 상징과 스토리, 의례와 가치가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징’으로서 길의 문화콘텐츠가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표층에 떠있는 그 상징들을 지탱하고 성장시킬 뿌리로서의 ‘가치’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걷는 길에 관한 연구의 상당 부분은 지역관광활성화와 같은 현상적 결과에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 스토리 개발과 같은 수준의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걷기 문화와 문화콘텐츠에 관한 의례와 규범 등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 길의 상징과 의례, 영웅서사를 키워내는 그 뿌리로서의 길 문화 가치에 관한 논의도 매우 빈약하다.

걷는 길은 느낌의 철학, 심의 철학이 구현되는 공간이다. 심은 일과 노동의 반대말이 아니라, 일과 노동의 완성으로서의 안식(安息)을 의미한다. 편안한 숨을 쉬는 것이 심이며, 궁극의 평화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며 당신이 곧 그 길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여래는 옛길을 알리고 길을 아는 사람, 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길의 이러한 깊고 무거운 의미와 가치들이 걷는 길의 방향을 세우고 비전을 밝히는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길의 역사』, 문화과학사, 2015.
- 경기도, 『경기지오그래피』, 2006.
- 김명수·박정은·최영국·정소양, 「江·山·海를 잇는 국토녹색길 조성」, 『국토정책 Brief』 227호, 국토연구원, 2009.
- 김종혁, 「[옛 길을 따라] 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68권, 역사비평사, 2004.
- 레베카 소닛, 김정아 역, 『걷기의 역사』, 민음사, 2003.
- 마살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개발 연구원, 『걷기여행길 통합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2004.
- 박정원, 『내가 걷는 이유』, 조선뉴스프레스, 2015.
- 선목혜자,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아침단청, 2013.
- 심승구,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서울학연구 58권, 서울학연구회, 2015.
- 여성조선, 『등산전문기자들이 직접 다녀온 명품 둘레길 33선』, 2014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콘텐츠하우스, 2017.
- 이기상, 「문화콘텐츠학의 이념과 방향」, 『인문콘텐츠』 제23권, 인문콘텐츠학회, 2011.
-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재론再論」, 『글로벌창의문화연구』 제4권, 글로벌창의산업연구센터, 2014.
-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집·터·길의 인문사회학』, 세창출판사, 2017.
- 조창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크리스토프 라무르, 고아침 역, 『걷기의 철학』, 개마고원, 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역사문화로 개발실태 및 활성화방안』, 2014.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국내 아웃 도어 현황 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 2014.

〈ABSTRACT〉

**Ec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Way Culture Contents
– Focus on the Gyeonggi-yetgil –**

You, Young-Cho

Trail-walking has been established as a major cultural content for travel and health. A lot of walking trails such as Ollegil, Dullegil, etc. have been built, and the proposal of building ‘Korea Dullegil’ at the level of a national policy was made. But there have been no basic questions, such as ‘What kind of way is this?’, ‘What people is it that walk?’, ‘Why do they walk?’, and ‘How is it that they should walk?’, raised yet. Instead, in most local governments,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paid attention to the economic gains, such as promoting tourism in the regions, through building trails.

In this paper, the present writer will consider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Way’ in the first place and then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Gyeonggi-yetgil(the old routes in Gyeonggido Province).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on, the vision and the way of restoring the Gyeonggi-yetgil will become clear in conclusion.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reviewed, Way has the whole significance beyond the sense of a specific physical space for walking. It contains not only the abstract itinerary of the past times, the journey of life of the past people, the lifestyles and methods of the people, but it contains philosophical attitudes and norms on which the principles originated from such times and people have been projected, as well. In addition, we could tell that in the principles and the methods of Way is implemented the principle of Lao Tzu, who said that people learn from the earth, the

earth learns from the sky, and the sky follows Tao(道) and Tao(道) learns from the nature. In the history of Way, which has embodied such principle of the nature, have been inscribed the functions fulfilling biological, social, political, cultural, philosophical, and religious desires of human beings.

In terms of the natural ecology condition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Gyeonggi’, the Gyeonggi-yetgil(the old trails in Gyeonggido Province) will be the space functioning as the basic roads radiating toward all directions in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it will be the way to spiritual enlightenment or the way to wisdom in terms of the implication of old routes.

Therefore, the Gyeonggi-yetgil will establish itself as the old routes of wisdom in Gyeonggido Province,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function as the basic routes radiating toward all directions and make way to the future through the nature and the history condensed in itself.

The vision of the Gyeonggi-yetgil will consist in paving way for the current that to consolidate its identity the owners of the routes build ‘the basic routes radiating toward all directions’ of their own accord. For this sak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logy, such as network, diversity, circularity, systemicity, and development potential,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routes.

The Gyeonggi-yetgil should promote the network and the circularity between society and ecosystem, and enhance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routes through bringing itself to political, cultural, and philosophical issues on the basis of its history and the nature. In addition, the system of the value, philosophy, knowledge, and methodology of walking should be developed, and by means of that system the Gyeonggi-yetgil should serve as a future-oriented and developmental role model.

Specifically, a positive outlook and understanding for natural ecology such as historic great aged trees and traditional ecology in the Gyeonggi-yetgil is

necessary. And it should contain not only a variety of ‘trail schools’ but also ‘the route for healing and meditation’, ‘the route to peace’ for overcoming ‘the Northern Limit Line of thinking’ and ‘the feminine-friendly route’ in gender perspective, etc.

Key Words : Way, Walking, Gyeonggi-yetgil, Cultural Contents, Ecology

